

24년 12월 목회일정

8일(주일)	입교 및 성찬입회식(김성재 이은수)
15일(주일)	결산 및 예산 공동의회
22일(주일)	성탄주일
29일(주일)	2024년 임시직분자 임명(4/4분기특별헌금) 뉴웨이브교회 공동의회
9일(월)	결산 및 예산위원회(재정심방보고)
19일(목)	3교회(로뎀장로 샘터)목회자 모임(본교회당)
25일(수)	성탄절 모임

주간소식

환영합니다	예배에 처음 나오신 분을 주 안에서 환영합니다. 예배 후 담임목사를 만나시고, 돌아가세요
1. 성찬예식 / 매일 예배와 성찬상을 위하여 자신을 살핍시다. [본 교회 당회의 허락을 받은 입교인이 참여합니다]	
2. 오후예배헌금 / 후원목적(개혁정론 파서교회)	
3. 입교 및 성찬입회식 / 김성재 이은수학생의 입교와 성찬입회식이 오전예배 중에 있습니다(마침 후 축하식-기념촬영)	
4. 결산 및 예산 공동의회 / 다음 주일 오전예배 후에 있습니다 1) 안건 : 2024년 결산과 2025년 예산심의 2) 참석대상 : 본 교회 출석 6개월 이상인 등록입교인.	
5. 예결산 위원회 / 9일(월) 오후 8시 예배당에서 있습니다. 위원 / 장로2인, 집사2인, 재정위원(구성본 박지영)	
6. 가정(개인)기도회 / 밴드에 올려지는 아침묵상과 기도제목, 주보의 [설교요약지], 가정성경읽기 등을 참고하세요.	
한 주간도 말씀을 읽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게으르지 마시고, 전투적인 사명을 다 하며 승리하는 삶 되세요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소속으로 1997년 1월 개혁주의교회 건설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교회는 이 일을 위해 예배 안에서 참된 교회의 3가지 표지인 ① 진지한 말씀의 강단 구축(설교, 강독) ② 성례의 정확하고 성실한 거행(세례, 성찬) ③ 정당하고 올바른 권징의 시행(권고, 치리)을 애쓰며 노력하는 언약공동체로 자라가고 있습니다.	

동래언약교회 집회안내

주일예배	오전	11:00
	오후	15:00
주간기도회	아침기도	06:00(월-금)
	수요저녁	20:00
	지역기도회	각지역결정
	금요독서회	20:00
교회학교	유/SFC	주 13:00
	교회알기	주 13:30
	청년회	주 14:00

이 달의 봉사자

	12월	25.01월
교회소식	고충석	고충석
봉 헌	강정희	김낙형
안 내	노주혜	조안나

평균케 하는 원리

후원	개혁정론(고신 개혁 언론)
	파서교회(고신,강인중)
선교	외국인근로자선교(이요한)
구제	신정민선교사(선교사역준비)
	국성연화교회(최지혁)
	부산장대인전도협회(정용균)
장학	고려신학대학원(최승락원장)

교회봉사자

- 시무목사 / 최성림 양주동
- 시무장로 / 김영민 고충석
- 시무집사 / 이경준 김낙형
- 반 주 / 문경실 김신혜

주후 2024.12.08.(제28-49호)

주와 그 은혜의 말씀의 터 위에 든든히 서 가는 교회(행20:32)



대한예수교
장로회

동래언약교회

DONGNAE COVENANT *presbyterian* Church

<p>예배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과의 만남입니다.</p> <p>예배를 통하여 언약의 하나님의 말씀과 축복을 들으시고, 감사와 찬양으로 언약백성의 기쁨을 함께 나눕시다.</p>	주일오전예배		오전11시	인도 최성림 목사 설교 최성림 목사
	교회소식			
	개회			
	* 예배에로의부름 ↑	사 11:10(교송) 인도자 : 그 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회 중 :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 축복의인사 ↓	고전1:3(다함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좇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 경배찬송 ↑	찬송11장(3)		
	죄의고백			
	* 십계명봉독 ↓	신 5장(전계명/교독)		
	* 죄의공적고백 ↑	제 1형		
	* 용서의은혜의선포 ↓	인도자		
* 감사찬송 ↑	시편24편(2-3)			
말씀봉사				
설교를위한기도 ↑	인도자			
성경봉독 ↓	시119:103-110,요6:60-71			
선포를위한찬송 ↑	시편119-12편(1-3)			
설교 ↓	설교자			
영생의 말씀이 계신 곳				
아멘 송 ↑	찬송가643장			
성례시행				
세례식 ↑ ↓	필요시 시행			
성찬식 ↑ ↓	초대 신앙고백 찬송44장(2a-b) 구제헌금 분봉 분잔			
목회기도 ↑	설교자			
봉사사역				
봉헌및봉헌찬송 ↑	찬송가201장			
폐회				
* 강복선언 ↓	설교자			
*는 일어서서(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앉아가셔도 됩니다)				

47739

부산시 동래구 명륜로 261-1

예배당 051) 558-4890

목사관 010-4564-4890

www.dcpchurch.com

주일오후예배	오후 3시	인도 설교	양주동 목사 양주동 목사
교회소식			
개회			
* 예배예로의부름 ↑	시24:9-10(교송)		
인도자: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회 중: 영광의 왕이 누구시나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 축복의인사 ↓	벤후1:2(인도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앞으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 경배찬송 ↑	시편65편(5-6)		
신앙고백			
* 신앙고백 ↓	사도신경(고신총회)		
* 감사찬송 ↑	찬송20장(4-6)		
말씀봉사			
설교를위한기도 ↑	인도자		
성경봉독 ↓	엡 4:22-24		
교리문답교독 ↓	하이델베르그88-91문답		
선포를위한찬송 ↑	시편143편		
설교 ↓	설교자		
진정한 회개			
아멘송 ↑	찬송가643장		
자비사역			
봉헌및봉헌찬송 ↑	찬송41장(1-3,8)		
폐회			
* 강복선언 ↓	설교자		

주일설교를 기억하며(영생의 말씀이 계신 곳)

- 매주일 강단에서 생명의 말씀만이 풍성하게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바르게 알고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먹기에 힘쓰도록
- 선물로 주신 믿음을 통하여 영생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주님께 붙어있는 성도들 되게

외국인근로자선교회(이요한 목사)

- 노동과 생활풍속 문화의 차이와 언어로 어려움을 당하는 외국인근로자들이 어려움을 잘 이기게
- 외국인근로자들이 고용주들이나 내국인 동료직원들의 차별없는 대우로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 이교도인 근로자들이 신앙의 건덕을 지닌 내국인친구들을 만나 복음을 듣고 회심할 수 있도록

직분자들의 봉사를 위하여

- 직분자들이 마음의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섬겨 주의 몸을 굳게 하도록
- 직분자들이 한 형제 자매된 성도들을 돌아보며 자신과 교회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도록
- 직분자들이 주의 자녀된 성도들을 돌아보기에 전심전력을 쏟을 헌신되고 충성된 마음주시길

국가위정자와 이웃을 위해

- 위정자들의 실행으로 어려운 시국에 나라의 안위와 국정의 안정을 위해 늘 깨어있는 시민되게
- 공직자로 있는 성도들이 공무를 수행할 때 의와 진리를 따라 감당하며 정직함으로 임하도록
- 신앙 때문에 핍박과 손해를 당하는 성도들이 인내가운데 주께서 베푸시는 긍휼을 맞보도록

주간기도회

아침기도회
월~금 6시(교회밴드)
요한복음 묵상
인도 : 최성림 목사

수요기도회
수요일 20시(예배당)
[말씀·고백·샬]
인도 : 최성림 목사

지역기도회
인도 : 최성림 목사
* 동부(수, 10:30)

인도 : 양주동 목사
* 김해(수, 19시)

이야기성경

구 85. 모르드개와 하만장관

신 54. 로마로 가는 길

주간성경읽기

주일	렘 9-11	계3:14-22
월	렘12-14	계 4
화	렘15-17	계 5
수	렘18-19	계 6
목	렘20-21	계 7
금	렘22-23	계 8
토	렘24-26	계 9

왕처럼 살고 있습니까? 왕처럼 나누어주고 있습니까?(2)

(클라리온(Clarion) vol 71. No 11 / 개혁정론에서)

릭 밴더호스트 목사(Grace Canadian Reformed Church)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사도행전 14장 17절에서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그럼에도 인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을 저지르는 것이 비극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선물로 주시는데, 우리는 그분의 선물이 당연히 우리의 것인처럼 생각하며 하나님의 왕권에 도전을 합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러한 반역자들에게도 계속하여 좋은 것을 베풀고 계시는 왕이시라는 사실입니다(마 5:45).

성경에 있는 왕의 모습

성경에 등장하는 왕들의 모습을 보면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왕되심을 드러내는 왕들보다는 탐욕적인 왕들을 더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사사기 3장에 등장하는 모압왕 에글론을 생각해봅시다. 당시에 모압은 굉장히 강성하였는데, 에글론 왕은 매우 탐욕스럽고 이기적이었습니다. 그는 궁에서 날마다 만찬을 즐기면서 살아갔지만, 백성들은 그의 통치 하에 큰 고통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신약성경에도 흥미로운 사례가 하나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18 장에는 부유한 관리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는 예수님께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지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관리는 매우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는 큰 부자였고, 그의 재산을 나누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구약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왕들도 이러한 탐욕스러운 왕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실 사무엘상 8장에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타락한 인간 왕의 모습을 경고하였습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왕은 백성들의 아들과 딸들을 데려다가 자신을 섬기게 할 것입니다. 그 왕은 백성들의 좋은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을 취할 것입니다. 또한, 그는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십일조와 좋은 종들과 당나귀들을 거두어 갈 것입니다. 이처럼 사무엘은 인간 왕이 베풀고 섬기는 왕이 아니라 빼앗아가는 왕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구약성경에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왕되심을 드러내는 왕들도 등장합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그런 왕이었습니다. 다윗이 통치 말년에 막대한 자원들을 거두었지만, 이는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솔로몬도 스바여왕에게 원하는 것을 다 나누어 주는 왕이었습니다(대하 9:12). 그러나 다윗과 솔로몬도 실패한 부분이 없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게 했습니다. 이는 결코 하나님의 자비로운 왕되심과 같은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솔로몬도 수많은 병거와 금과 은을 자신을 위하여서 모았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하여서 경고하셨던 타락한 인간 왕의 모습이었습니다(신 17:16-17). (계속)

합"입니다. 내면적으로 죄를 미워하고, 외면적으로 죄를 피한다고 해서 회개가 이뤄지는 것이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합니다. 그래야 옛 사람으로서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옛 사람으로 죽게 되니 죄가 미워지고 죄를 피하게 되는 겁니다. 먼저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합니다.

죄가 미워지는 이유는 자신의 슬픈 감정이나 사람들의 시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을 진노케 하니 도저히 죄를 좋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진노케 한 사실 때문에 죄에 대해 슬퍼하고, 죄를 피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의식하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고, 죄의 길에서 떠납니다. 그리고 더욱이 이 죄를 이길 수 있게 하시는 유일한 피난처이신 하나님께 의지하게 됩니다. 더욱 그리스도와 연합합니다.

2. 새 사람으로 살아남

회개는 새 사람으로 살아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새 사람으로 살아나는 일도 내면과 외면에서 모두 작용을 합니다. 내면으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마음으로 즐거워합니다." 외면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선을 행하면서 사는 것을 사랑하고 기뻐합니다." 회개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선을 행하는 삶까지 포함합니다.

루터 선생은 95개문의 첫 번째 항목에서 회개는 신자의 삶 전체에서 고백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회개는 한 순간의 경험이나 특별한 체험이 아닙니다. 신자의 생활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일입니다. 내면의 마음과 외적인 행동을 포함하고, 또 신자의 모든 인생의 시간을 포함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어제 회개했다면 오늘은 회개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선행은 무엇입니까?(91문) 선행의 출발은 "믿음"입니다. 선행의 과정은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그리고 선행의 끝이자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믿음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지 못할 때에 비록 계명을 지킨다고는 하지만 '사람의 계명'을 추구할 뿐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고 자신들의 명예를 추구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위선자들을 향해 사람의 계명을 좇는다고 질책하셨습니다(마 15:9). 구약성경에서 사울 왕도 그렇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위해 일하고 왕으로서 직무를 다했지만, 정작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로 부터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는 참된 선행이 아니라 거짓된 일을 행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로 옛 사람에 대해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의와 거룩을 행하는 당신을 닮아가게 하십니다. 아멘.

동래연약교회 가정기도회[2024년12월 1일 주일오전]

신앙고백	사도신경
찬 송	찬 201장
성경봉독	요6:60-71, 시119:103-110
설 교	영생의 말씀이 계신 곳 부도대독
기 도	부 모
주기도문	다 같 이

주제 : "성도는 영생의 말씀이 있는 기에 교회로 나아와야 한다."

예수님께서 '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자 많은 제자들이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 무리는 이 말씀을 듣고 주님 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1. '떠나는 자들의 이유'

예수님을 떠나간 자들은 주님의 가르치신 말씀이 '어렵고, 알아들을 수 없'(60)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상징적인 말씀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이유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더 이상 주님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이시지 않고, 또 자신들의 임금 삼으려는 의지를 무산시킬 때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알아들겠는가?"하면서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말은 현실적인 이유로 주님을 따르던 자들이 유익이 없다고 여겨질 때 떠벌리는 가장 쉬운 핑계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의 불꽃같은 눈은 단지 육신의 유익을 위해 좇았던 자들의 중심을 보고 아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서 진리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비록 스스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칭하고 다녔지만, 실상 주님의 말씀에 무감각했고, 깨닫는 지혜도 없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신령한 자들에게는 구한 생명이지만, 육신을 좇아 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거치는 것일 뿐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자는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습니다.

주님의 불꽃같은 눈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살피십니다.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도 있느니라." 주님은 이미 당신에게 나아오는 자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곧 모든 위선자들과 형식적인 신앙을 알고 계십니다.(64a,참,1:47) 불신앙에 대해 사람은 알지 못하지만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십니다. 진리가 선포되어질 때에 성령님이 아시고서는 이 진리의 말씀을 먹을 자가 없고, 깨달을 자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미련하고, 또 부족한 자라도 주님의 선물인 참된 믿음을 소유한 자는 믿고 깨달을 것입니다.

2. "머물러 있는 자들의 이유"

많은 제자들이 물러선 후 예수님께서 "너희도 가려느냐?"고 물으실 때 베드로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

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다"고 대답합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시는 것이 영생의 말씀인 것을 알았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제자는 그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라고 고백했는데, 어떤 제자는 떠나갑니다. 오직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만이 예수님이 "영생의 말씀인 것을 깨달아 믿었습니다." 온갖 세상의 유혹과 이생의 자람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입술에서 시몬 베드로의 고백이 터져 나와야 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이 고백은 오직 말씀의 맛을 알고, 말씀의 중요성을 알고, 그 능력을 아는 자들만의 고백이며, 그 안에 머무르는 것입니다.(시119:103,110)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우리의 어머니로 삼으셔서 생명의 젖, 곧 말씀을 공급하며, 일용할 영의 양식을 먹이십니다. 그리고 어려운 말씀이라도 물을 때 그 의미를 설명하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깨닫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하여 밝히 깨닫도록 역사하십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주님을 떠나지 않는 이유는 이적을 보았거나, 많은 체험을 하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주님이 영생의 말씀이시기에, 그 주님의 몸에 속하는 것이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이기에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3. “주를 따르는 나의 고백은 무엇인가?”

베드로는 계속하여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고 답합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당신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시라는 것을 알고 믿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고 알았다’고 합니다. 이건 신비입니다. 사람들은 아는 것을 믿고, 보아야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믿음은 ‘언약을 따라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히11:1)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도록 하는 것은 우리의 지식이나, 노력을 통해서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지혜 있는 자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미련한 자라도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면 “예수님은 나의 주시오,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합니다. 몰라서 안 믿는 것이 아니라 안 믿기 때문에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많은 무리들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기에 그분이 생명의 떡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왕으로 삼으려고 까지 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에 그분의 말씀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제자들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기에 배와 그물과 처와 장모를, 부모와 재산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무리가 주님을 따르다가 떠날지라도 주님을 붙잡고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온 생애를 그분에게 맡기는 것이 참 지혜라는 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우리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이 고백은 단순히 내가 교회 안에 속해 있다는 것을 표하는 것 이상입니다. 여기에는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정해져 있고, 삶의 의무가 따르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주님께 우리의 무릎을 꿇고 온 인생을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동래언약교회 가정기도회[2024년12월 1일 주일오후]

신앙고백	사도신경
찬 송	찬 255장
성경봉독	엡 4:22-24
설 교	진정한 회개	부모대독
기 도	부 모
주기도문	다 같 이

주제: “진정한 회개는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88문: 사람의 진정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답: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89문: 옛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하나님을 진노케 한 우리의 죄를 마음으로 슬퍼하고 더욱더 미워하고 피하는 것입니다.

90문: 새 사람으로 다시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마음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91문: 그런데 선행은 무엇입니까?

답: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그리고 그의 영광을 위하여 행한 것만을 선행이라 하며, 우리 자신의 생각이나 사람의 계명에 근거한 것은 선행이 아닙니다.

1. 옛 사람을 죽임

진정한 회개가 있다면, 거짓 회개도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내면과 외면이 모두 변화합니다. 한 쪽만 변한다면 거짓 회개입니다. 외면의 행동은 바뀌지 않고 내면의 감정에만 호소하는 회개가 있습니다. 감정적인 회개가 그렇습니다. 마음으로 슬퍼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동일한 죄를 짓습니다. 회개의식을 행하기도 하고, 죄를 적어 불로 태우는 행사를 하기도 하지만, 여전히 죄를 피하지 않고, 죄 가운데 머무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슬퍼했지만, 예수님께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행동의 변화 없이 슬퍼만 한다고 해서 진정한 회개라 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내면의 변화 없이 외면의 변화만을 추구하는 회개도 있습니다. 고행이나 선행을 통해서 회개의 증표를 삼으려 합니다. 중세의 교회는 여러 가지 고행으로 회개의 증표를 삼으려고 했습니다. 십자군이나 성지순례와 같은 고통스러운 수행들은 자신의 벌을 사함 받을 수 있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죄에 대해 슬퍼하는 마음 없이 그저 힘든 고행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이런 외식적인 회개에는 가장 본질적인 것이 빠져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